

간 질환 환자의 방담

문 경 회

(연세대학교부속 세브란스병원 내과 수간호사)

◇ 일 시 : 1988년 7월

◇ 장 소 : 세브란스병원 내과 회의실

◇ 참석자

사 회 : 세브란스병원 내과 수간호사

환자 1 : 남자, 36세, 회사원, Hepatitis

환자 2 : 여자, 35세, 교사, Hepatitis

환자 3 : 여자, 45세, 전도사, Liver Cirrhosis

환자 4 : 여자, 37세, 주부, Liver Cirrhosis

환자 5 : 여자, 52세, 주부, Hepatoma

환자 6 : 남자, 65세, 두직, Hepatoma

사회 : 여러 가지로 불편하신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간질환을 앓고 계신데 그동안 어떻게 치료를 받으셨고 또 치료를 받는 과정에서 느끼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알아보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해 보았습니다. 아무쪼록 기탄없이 말씀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앓고 계신 병에 대하여 병명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환자 1 : 저는 간염을 앓고 있습니다. 85년도에 발병을 하였는데 당시 간조직 검사 결과 만성 활동성 간염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 2 : 저도 만성 활동성 간염입니다. 84년 7월에 병이 났으며, 이번에 조직검사를 한 결과 만성 활동성 간염인데 간경화증으로 갈망말랑하는 상태라 합니다.

환자 3 : 저는 간이 쪼른 줄었다고 합니다.

환자 4 : 저는 간경화증이라고 합니다.

환자 5 : 저는 간경화증으로 4년전 부터 치료를 받아 왔는데, 작년 12월부터 간이 접이 나타

나고 염증이 생겼다고하여 치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환자 6 : 나는 간암입니다. 1년반전에 W병원에서 다리 혈관을 꿰고 사진을 찍어본 결과 간이 퍼져 2달도 못산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사회 : 모두 병명을 잘 알고 계시군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증상을 느끼시어 병원을 찾게 되었나요?

환자 1 : 85년도에 꽤히 피곤하고 기운이 없는 증상을 느끼곤 하던 차에 마침 회사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를 받고 간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환자 2 : 저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는데 84년도에 남편이 간염으로 입원하였을 때 가족도 체크해 보라는 권유를 받고 검사를 받아 본 결과 똑같이 간염이라 하여 저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습니다.

환자 4 : 저는 87년 1월에 몸이 안 좋아 증함 진단 결과 간염진단을 받았는데 88년 1월에 한약을 복용하였더니 갑자기 배가 불러지고, 전신에 황달이 심해지고 다리가 뻥뻥 부어 입원했는데 그때 간경화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사회 : 환자 3께서는 어떤 증상으로 병원을 찾으셨나요?

환자 3 : 저는 28세때 임신중독증으로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는데 이때 간이 늘어났다는 말을 들었어요. 이후 비교적 건강하게 지냈는데 4년전부터 가끔씩 왼쪽 배가 아파 근처 병원을 갔더니 비장이 부었다고 하네요. 한 3년 전부터는

더 자주 아프고 피곤하면 몸이 붓고, 쉬면 가라앉고 하더니, 작년 여름에 과로하고 잠을 못 잤더니 갑자기 배가 팽창하고 소변이 적게 나와 동네 병원으로 뛰어갔더니 복수가 찼다고 큰 병원으로 가보래요. 그때는 의료보험도 없어서 매우 곤란했는데 마침 조카가 흑석동 S병원 간호사이어서 30% 싸게 할 수 있다고 하여 그곳에서 진찰받고 간이 굵었다는 진단을 받았읍니다.

환자 5: 4년전 간경화증 진단을 받았을 때는 저도 배가 붓고 황달이 심했습니다. 이번에 접이 나타나고 염증이 생겼다고 했을 때는 특별한 증상은 없었고 주기적으로 병원을 다니는 과정에서 초음파검사 결과 나타났어요. 그런데 요즘 와서 자꾸 오른쪽 갈비뼈 밑이 빠는하구 아파요.

환자 6: 나는 12년 전에 간경화증 진단을 받았어요. 지금은 60 넘어 이렇게 꼬부라졌지만, 젊었을 때는 언론계에도 있었고, 안해본게 없지요. 그 때 술을 하도 많이 먹어 얻은 병이지요. 간경화증 앓으면서 2년이 지난 후 청주 N병원에 가서 종합진찰을 받았더니 만성간염이래요. 간경화증이 만성간염으로 바뀌지기도 하나보죠? 한 7~8년 약먹고, 술 안 먹고, 밥 잘 먹었더니 괜찮아졌어요. 그래서 다시 술을 나섰죠. 그랬더니 1년반전부터 소화가 안되고 속이 거북하고 피곤하여 견딜 수가 있어야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콤퓨터가 뭔가 찍더니 간에 멍어리가 있다고 서울 큰 병원으로 가라질 않겠어요. 그래서 W병원에 갔더니 아까 얘기처럼 2달 얘기를 하더군요.

사회: 최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즘도 술을 드시나요?

환자 6: 죽으라고요? 술먹고 생긴 병인데 또 술을 먹어요? 그런데 담배는 못끔쥘데요, 담배라도 피워야지 답답해서 견딜수가 있어야죠.

사회: 그러면 그동안 병원치료는 어떻게 하셨으며 경과는 어떠하였습니까?

환자 6: 2달밖에 못산다고 하면서 그래도 원하면 약물치료나 받으라고 하는데 어차피 못 살 걸 약물치료는 받아 뭣 합니까? 그래서 다 뺑게치고 퇴원을 했지요. 그런데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멀쩡하게 살아 있으니……, 물론 속이야 불편하지만, 나 밖에 나가면 환자로 안 봐요.

환자 1: 정말 지금 헛기도 아프신 분 같지 않고 경정하십니다.

저는 85년 발병시 입원하고 이년이 두번째 입원입니다. 처음에는 외래를 규칙적으로 다녔으나 좀 지나니까 귀찮기도 하고, 또 직장일로 다니기도 어렵고 하여 컨디션이 안좋고 수치가 올라갔다 싶으면 외래 방문을 하였읍니다. 가만히 보니 제가 좀 무리를 하거나, 감기에 걸리거나 몸에 컨디션이 안 좋을 때 검사를 해보면 꼭 수치가 올라갑니다.

환자 2: 저는 84년 입원 치료후 정기적으로 외래 방문하여 피검사 하고 약타다 먹고 수치가 정상이 되었다 하여 다 나온줄 알고 있었읍니다. 금년 2월 둘째아이 낳고 보신한다고 한약을 한재 먹었으며, 3월에 간기능 검사 결과 수치가 500이 넘었다 하여 C병원에 40일간 입원해 있었어요. 거기서 만성간염인것 같다며 간조직검사 권유를 받았으나 무서워서 거절하고 퇴원했지요. 6월에 대학원공부 때문에 무리를 하면서 다시 수치가 상승하였기에 간조직검사 얘기를 들은 카드 있어서 이 큰 병원으로 개입원을 하게 되었읍니다.

환자 5: 저는 집이 D시여서 그곳에서 가까운 K대부속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오라는 날짜에 꼬박꼬박 다니면서 수시로 피검사 하고 약도 타다 먹었어요. 또 수시로 초음파검사도 하고, 한라는대로 다 했는데 왜 접이 생겼는지 모르겠읍니다. 약국 다니는 동생이 있어 접이 나타났다고 하니가 여기 병원을 가라고 하였읍니다. 그래서 던저번에 입원하여 다리 혈관을 채고 간까지 약을 집어 넣어 전을 쫓이고 염증을 가라앉히는 치료를 한 번 받았읍니다. 치료후 1달 있다가 적은 콤퓨터 사진에 접이 좀 줄은 것 같더니, 6월에 다시 적은 것에는 또 나빠졌다 하여 다시 한번 다리혈관으로 약을 집어 넣는 치료를 받기트 하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환자 4: 저는 간염이 나빠지면 간경화가 되는

즐 몰랐어요. 작년 초 간염이라고 할때 약 몇번 갖다먹고 피곤한 것이 없어서고 괜찮아서 그냥 있었어요. 올 1월에 간경화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3월, 이번 6월, 벌써 3번째 입원입니다. 병원에서 퇴원할 때는 추기도 썩 빠지고 복수도 빠지는데 집에 가서 조금만 있으면 또 붓고, 복수 차고, 황달 생기고…… 퇴원할 때 약을 잘못 지어 주시나 봐요.

환자 3: 저는 이전까지는 의료보험도 없어 계속 병원도 다니지 못하여 어떤 때는 많이 붓고, 배가 차면 동네 약국에서 이노제를 사다 먹고, 또 빠지면 안먹기도 하였습니다. 올 3,4월경 20일 정도 약을 끊었더니 또 증상이 악화되어 다시 이노제를 먹었으나 소변도 잘 안 나오고, 왼쪽, 오른쪽 배 진통이 심하여 다시 큰 병원인이 병원에 입원을 하였습니다.

사회: 여러 간질환 환자분들 얘기를 들으면 렉에서 여러가지 좋다는 음식이나 약을 해 잡수는다고 하던데 여러분께서는 특별히 드신 것이 있으십니까?

환자 4: 저는 한약을 좀 썼는데, 간에 한약이 나쁜 줄도 몰랐습니다. 한약 먹고 이렇게 나빠진 것 같아요. 그때 입원했다 퇴원한 다음에는 병원에서 지어준 약탄 꼬박꼬박 먹고 가만이 있었죠. 또 짜게 먹는게 나쁜 줄도 몰랐어요. 먼저번 입원했을 때 병원 음식이 하도 싱거워 집에서 반찬을 해다 먹다 짜게 먹는다고 의사 선생님과 혼났어요. 밥도 배가 불터 몇 숟가락밖에 못 먹었어요. 고기가 좋다고 하여 미역국에 고기를 넣고 많이 끓여 먹었어요.

환자 2: 저도 고기는 저절로 먹었어요. 고단백 식사를 해야 한다고 하여 먼저 C병원에 입원했을 때 이틀에 한 근씩은 먹었어요. 이젠 고기의 “고”자도 싫어요. 누가 조개가 좋다고 하여 조개국, 제치국도 직접도록 먹었습니다. 치즈도 많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살만 쪼요. 요사이는 그렇게 먹었는데도 낫지 않아 그냥 피는대로 병원에서 나오는대로 먹어요.

환자 3: 저는 직업이 견도사라서 항상 바쁘고 쉬지도 못하고 음식도 특별히 신경 못쓰고, 여

리 고우들과 함께 다니면서 먹었습니다. 상태가 나빠 복수가 찼을 때는 배가 불터 먹을 수가 없어 굶기도 여러번 하였습니다. 집에 와서는 피곤하고 일이 많으니 특별히 잘 해 먹을 수도 없었어요. 가끔 아빠가 일찍 들어오시는 날엔 고기국을 끓여 주기도 했습니다. 알부민 주사가 좋다고 하여 집에서 몇 번 사다 맞기도 했지요. 나중에 알부민 성분이 계란 흰자에 많이 들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계란 흰자를 많이 먹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사회: 알부민 주사가 어떻게 좋다고 알고 계십니까?

환자 3: 그냥 간에 좋다고 하던데요. 맞으면 부기가 빠지고 소변도 잘 나오지요. 워낙 비싸서 돈에 좀 여유가 생기면 맞았어요.

환자 5: 저도 몇번 집에서 알부민을 맞았읍니다. 간에 좋다고 하던데요. 단백질을 많이 먹으라고 하여 곰국, 치즈 등 한꺼번에 많이 먹을 수 없어 조금씩 하루에도 여러 차례 먹었습니다.

환자 6: 저는 음식을 잘 먹기도 했지만, 약이 타기 보다는 이것저것 많이 써 봤어요. 누가 느릅나무, 구주팽나무, 홀잎나무, 망개나무 또 이름은 잊었지만 한 가지 더해서 5가지 나무 뿌리를 삶은 물이 좋다고 하여 그 나무 뿌리를 가마솥에 삶아 그 물을 냉장고에 넣고 수시 복용을 했습니다. 또 들미나리, 질경이 생즙을 식전 공복에 한 컵씩 마셨고요. 굴병이가 좋다고 하여 굴병이 1가마는 먹었을 거예요.

사회: 그런 것들을 다 어떻게 구하셨나요?

환자 6: 시골이니까 흔하지요. 며느리나 또 잘 아는 사람들을 사서 산속에서 캐기도 하고, 동지 신탄 눈속에서 캐기도 했지요. 굴병이는 사기도 하고, 시골에 가던 버려진 초가집이 있어요. 그런데서 사워나 아들들이 구해왔습니다.

사회: 또 어떤 것들을 잡수셨습니까?

환자 6: 인삼, 숙주황, 생울, 구기자가 좋다고 하여 다려 먹기도 했고, 꿀과 인삼가루, 또 꿀과 살구씨 가루를 섞어서 복용했지요. 편자환 켈술이 좋다고 하여 1번에 20일치씩 열댓번 먹었고요. 삼손이라고 효모 등을 섞은 것인데 그

것도 열댓번 먹었습니다. 또 썸.피.엑스라는 약을 6개월간 아침, 저녁으로 2번씩 내가 직접 엉덩이에 주사를 놓았지요.

환자 2: 저도 생미나리즙이 좋다는 얘기를 듣고 현재 먹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침마다 즙을 내어 매일은 어려우니까 이틀에 한번씩은 병원으로 날라옵니다. 그러면 냉장고에 넣고 오후, 밤 공복시 복용하고 있습니다.

환자 1: 저는 편자환을 10알쯤 먹었습니다 퇴원하면 먹으려고 지금 중공에서 배로 실어오고 있습니다. 삼촌이 15년전부터 판성간염을 앓고 계신데 그 분은 돈이 많아서서 양해본 것이 없는데 그 증 편자환이 가장 효과가 좋다고 하십니다. 인터페론도 쓰셨는데 돈만 1,000만원쯤 들고 효과도 별로 없으셨네요. 편자환을 쓰니까 수치가 떨어지면서 계속 100 정도 유지가 되시더라고요.

환자 4: 저는 그런 것들을 너무 부르다가 요즘에야 책도 보고 간환자한테 얘기도 들었는데요, 과연 그런 것들이 다 효과를 보는지요? 어떤이들은 케일, 캄프리가 좋다고도 하고, 뱀도 많이 먹었네요.

환자 6: 어찌거나 뭔가 효과가 있었기에 2개월 사형선고 받고도 여지껏 살아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웃음)

사회: 환자 1과 환자 2께서는 간염이신데 간염이 전염된다는 것을 아실줄로 생각합니다. 특별히 어떻게 주의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환자 2: 84년 발병후 6개월 동안은 식기 소독등 조심을 하였는데 수치가 떨어진 이후로는 신경을 쓰지 않았어요. 올 3월 다시 입원하면서 나머지 식구, 2개월 된 아기까지 모두 피검사한 결과 깨끗하다 하여 2차까지 예방접종하고 3차만 남은 상태입니다. 간난아이하고는 뽀뽀도 하지말라고 하던데 안아주지도 못하나요?

환자 1: 처음 내가 발병했을 때 이제 4살 된 아이는 즉시 피검사를 하여 예방주사를 3차례 맞혔습니다. 이후 아무런 주의없이 대담하게 행동을 했고 아이에게 거리낌없이 뽀뽀도 했어요. 주위에서 제 병을 알고 있으며 예민한 사람들은

저를 거리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발병이후 술, 담배를 끊고 술자리에 가도 사이다만 마셨습니다. 어찌다 무의식적으로 제 잔에 술을 따라 돌리면 라시지 않는 것을 보고 이제는 권하지 않습니다.

환자 4: 저는 작년에 간염이라고 진단 받았을 때 병원에서 식구들도 검사해보라는 말은 들었으나 그냥 두신했고 아무 것도 한 일이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모두 피검사를 해봐야 되겠어요.

환자 1: 간염 환자는 남을 위해서라도 1회용 수저, 1회용 컵 등을 사용하고 비려야 하는데, 대부분의 식당이 그렇지 않아, 사실 저같이 거의 밖에서 식사를 하는 경우 조심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식사도 서양식으로 나 먹는 것만 먼저 떠 놓으라 하는데 우리네 식사 방식으론 매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내가 간염환자나 나 먹은것만 미리 떠 놓겠소 할 수도 없고, 미안하고 쪼스런 마음도 있지만 설마 옮으라 싶습니다. 또 대부분은 저 자신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사회: 간질환 환자들은 안정을 하라고 들으셨을 텐데, 어느 정도의 운동이나 일을 하십니까?

환자 1: 수치가 올라 피곤을 느낄 때는 일찍 들어와 쉬고, 또 아무래도 회사 일도 쉬면서 하게 됩니다(웃음). 전에는 테니스, 등산 등을 즐겨 했는데 병이 난 이후로는 등산만 어찌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보통대로 활동을 합니다.

환자 2: 저도 보통대로 활동을 하나, 피곤을 자주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집안 일은 아무래도 일하는 사람이나 어머님께서 돌봐주시어 의식적으로 집에선 거의 아무 것도 안하는 편입니다.

환자 5: 저는 기운이 없어 할 수가 없어요. 과출부가 매일 와서 집안 일을 하나, 아무래도 주부가 움직여야 하잖아요.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하니 식구들에게 제대로 히 줄 것을 못해줘요.

환자 4: 저도 집안 일은 친정 어머니가 오셔서 해주십니다. 배가 부르고 숨이 차고, 다리가

부으니 움직이기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예요.

환자 3: 저는 항시 돌아 다니고 일을 해야 하는 직업인데, 이 병은 안정을 해야 한다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환자 6: 나야 60 넘은 노인네가 할 일 있습니까. 아침 먹고 가까운 다방에 나가는데 꼭 차를 타고 나가요. 가까운 거리지만 기운이 없고, 또 피곤해지면 앓되니까요. 한 2시간 앉았다 점심 전에 약을 먹어야 하나까 집으로 돌아옵니다. 오후에는 낮잠도 자고 그러저럭 지냅니다.

사회: 병을 앓으면서 가족들에게 느끼는 감정도 여러가지일텐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자 5: 주부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못하고 맨날 누워있으니 자식들 보기도 미안하고 몇 년을 병원 다니면서 까먹은 돈은 말도 못해요. 다행히 아빠가 장사를 하셔서 돈은 신경쓰게 하시지 않지만, 이 병은 고치지 못하는 병인데 도 두 지켜올거예요.

환자 2: 저도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어요. 낮에는 학교가고 저녁에 집에 들어오면 내 공부야 바빠다 하여 주부 노릇을 못하고, 올해만 벌써 2번째 입원이에요. 어머님 혼자 어려우셔서 이젠에 일하는 사람을 두었어요.

환자 4: 저도 남편과 자식들에게, 또 늙으신 친정어머니까지 모셔와 고생시키는 것이 괴송하죠.

환자 6: 자식도, 마누라도 지겹고 말구요. 나 처럼 옛날 병까지 십 몇 년을 앓으면서 온갖 것 구해오라, 삶아라, 고아라……, 아침 저녁 시간 맞춰 챙겨야지.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우리 마누라가 나 때문에 몇 십년은 더 늙었을 거예요. 이젠 돈도 다 까먹고, 그렇다고 집을 팔수도 없고, 나 움직일 수 있는 한도내에서 약도 쓰는 거지, 자식들에게 손 벌릴수 있나요. 젊은 사람들에게는 1~2백만원이라도 당장 살림에 축이 나는데, 자식들에게 폐를 끼칠 정도면 빨리 죽는게 낫지요.

환자 1: 돈이 은근히 많이 드는 것 같아요. 편자환 같은 것도 1알에 몇십만원이나 하고.

환자 6: 편자환 캡슐 한번 먹는데 25만원인데

열댓번 먹고, 삼손 한번 먹는데 15만원인데, 이것 열댓번 먹고 나니 돈 천만원이 없어지더군요.

사회: 오랫동안 치료하시면서 어려운 점도 많으셨을텐데 지금 현재 가장 문제가 되는것은 무엇입니까?

환자 1: 간경화증으로 병이 진행될까 걱정입니다.

환자 2: 저도 마찬가지예요. 간경화증으로 갈랑말랑하다는 말을 듣고 대학원 공부하는 것은 포기하기로 했고, 애나 잘 키우고, 다니는 학교나 잘 다니게 해달라고 날마다 하늘님께 기도합니다. 제발 간경화증으로 나빠지지 않도록…….

환자 3: 저는 첫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 일이란 항시 다니야 하는데 자꾸 붓고, 복수가 차면 어떻게 일을 계속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없는데 잘 낫지도 않은 병인가 본데 돈 들어갈 일이 제일 걱정입니다.

환자 4: 주부로서 일을 못하는 거겠죠.

환자 5: 주부 구실도 못하고, 집안 살림만 측내고…….

환자 6: 빨리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암이 악성이 있고, 양성인 것인데 내 것은 작년하고 크기가 똑 같다는데 양성인 아닐까요? 악성같으면 벌써 죽었을 독송인데 다시 한번 검사해서 수술을 하든지, 약물 치료를 하든지, 죽든지 숙시원하게 해브았으면 해요. 나, 관까지 물어 놓은 사람입니다. 틀릴있는 것은 안하려고 해요. 나, 안죽으려 합니다. 젊었을 때 화려하게 살았지만, 지금 60 넘어 이렇게 사는 것이 허망하지만, 조금만 더 살고 싶습니다.

환자 5: 이러다가 죽는 것이 아닌가 싫어요. 자식들 아직도 출가도 못시키고 할일이 배신 같은데, 죽으면 어찌나 싫어요.

사회: 의료진에게 바라는 것이 있으십니까?

환자 4: 병에 대해서 좀 더 잘 가르쳐 주셨으면 좋겠어요. 의사선생님들은 회진 오셨다가는 바람처럼 달아나 버리고, 저는 너무 몰랐어요.

, 잘 알아서 내가 내 몸 관리할 수 있었으
너 좋겠어요. 한약 같이 나쁜 것, 좋은 것도 미
리 얘기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아요.

환자 1; 감경화증으로 가지 않는 방법을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환자 2; 저드요. 그런 뉘든지 할 것 같아요.

환자 6; 검사하느라고 7일 입원해 있는 동안
5일 아침을 잤어요. 젊은 사람은 어쩔지 모
르겠지만 나처럼 늙은 사람은 아침 한끼만 못
먹어도 흑이나니 검사하다가 저래 죽겠어요. 빨

리 빨리 검사끝내고 결과에 따라 속 시원하게 죽
는다든지, 산다든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환자 4; 피를 너무 많이 뽑아가요.

환자 3; 빨리 치료를 잘해주셔서 나왔으면 좋
겠어요.

환자 5; 모두의 바람이죠

사회; 정말 모두의 바람입니다. 몸도 불편하
신데 오랜 시간동안 감사했습니다. 빨리 쾌유하
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에서 계속>

Counterpressure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 정서적 지지

분만이 진행되는 동안, 남편, 가족, 간호사등
이 산부의 곁에 함께 있어 주는 것은 매우 중요
한 지지가 된다.

· 분만진행에 대한 정보 제공

산부에게 분만의 진행에 대한 정보와 아울러

산부가 해야 할 일 등에 대한 지식을 제공함으
로써 안위를 도모할 수 있다.

· 불필요한 자극의 제거

산부가 머무는 방과 주위 환경이 쾌적할때 산
부의 안위가 도모된다. 시끄러운 소리가 없도록
하며, 불필요하게 산부를 만지지 않도록 한다.